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1호 [루계 제 25454호] 주제 105 (2016)년 11월 6일 (일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 야 야의 따 쓰 풍선은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풍악 산비누 광장을 현지지도하시었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광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활공정 등을 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자동화가 실현된 공장에서 물비누와 삼푸를 비롯한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다.

그이께서는 이 현대적인 광장이 미생 활동상에 이바지 하려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UPI통신, 민주광고주체사 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홍보까지도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광개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

제품의 가지 수와 생산량을 늘려 소비자를 위해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할 때에 대지지하시였다. 또한 일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 한다고 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UPI통신, 민주광고주체사 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홍보까지도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광개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

설립된 유정안과 종합병원을 현지지도 하시 소식을 민주광고통신, 비탈신문, 아트판, 로씨야의 인터넷홍보까지도 유진과 함께 하루빨리 세상에 부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 한다고 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UPI통신, 민주광고주체사 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홍보까지도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광개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출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에 조선로동당장 71돐에 조용히 하여 브라질단체들이 인터넷홍보까지에 투표하였다.

브라질 주체사상구연자는 10월 9일과 10일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조선로동당의 불은기와 더불어 영원한 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올렸다.

글들은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평도제계가 확고히 선

김일성동지의 것으로, 선군혁명원칙

수령의 강위력한 활동부로, 인민에 풍

용 위하여 복무하는 어미니탕으로 강

화발전시키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

의 업적을 칭하고 김정일동지도자는

붉은 기록에 오로지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성스러운 조선로동당기와

마을에 향으로 영생하시는 당시의

영원한 수반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글들은 70여년을 해아리는 조선로

동당의 백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의 행복을 미연하기 위한 무정

의 헌신으로 수놓아져있다. 하면서 인민

대중의 의와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

과 정책을 작성하고 인민의 운명을 죽임

입지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미니탕

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칭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

성 브라질위원회는 10월 18일

「김정일주체의 최후승리를 알당겨

거려온 대중의 행운과 함께 조선

과 함께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주체에서

결심하신 첫 혁명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로동당에서 드리운

명과 떠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것

은 『』에서 조선로동당의 뿐이

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의 강행은 조선로동당

강행의 기초로 되었다고 하면서 글은 조선로동당에 걸어온 70여년 역사

바로 『』의 최종목적을 실현하

기 위한 파병이었다고 서술하였다.

글은 『』에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이 조선로동당 진실과 활동의 확고한 지도자지침으로, 『』가

기원에 세 세대 전위투사들이 조선

로동당 창건의 풍물로 페리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출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 조선로동당장 71돐, 태도제국주의 통령직 30돐에 즈음하여 내

팔, 몽골의 신문, 인터넷홍보까지 등

이 특집하였다.

네덜란드 「아트판」 10월 7일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대양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전

훈장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들을

제작하였다.

신문은 『액전백승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

술하였다.

조선민족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활동자인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계수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는 당이다.

지난 새기 말렵 제국주의전파세력의

극단적인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조선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화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항일의 대성령동지와 김정숙동지의 영상

을 형상화한 모자이크벽화 『상원군

신하리 농민들과 함께 계서리』를

상원군에 펼쳤다.

주제 38(1949)년 9월 상원군

의 평원 한 농촌마을을 찾아주신

절세위인들께서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 농촌을 바꾸고 농사경쟁과

농사경쟁과 함께 농민들의

경쟁을 위하여 노력하고 심혈을

바쳤다.

어찌 이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